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5월 21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과장 조영태(044-203-4020), 김용운 사무관(4024)
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 이상일(044-201-3993), 최아름 사무관(3994)
관세청 통관기획과 과장 서재용(042-481-7810), 강경훈 사무관(7845)

전자상거래 수출 물류·통관 여건 개선

- 국토부, 도시 내(內)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설치허용과 5개 시범입지 선정 추진 -
- 코트라, 금년내 해외 7개 주요거점 지역에 B2C 공동물류센터 가동 -
- 관세청, 오픈마켓과 연계한 자동수출신고 시스템 도입 -

□ 제4차 **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**가 5. 21(목) **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과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**

○ **이번 협의회는**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**물류·통관 분야 여건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**되었다.

「제4차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」 개요

- 일시 · 장소 : '15. 5. 21(목) 09시-11시 / 코엑스(COEX/삼성동)
- 참석기관 :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민간 및 정부·공공기관 관계자 약 25여명
  - 이베이코리아, 롯데닷컴, LGCNS, 이지웰피아, 현대로지스틱스, CJ대한통운 등
  - 산업부·국토부·관세청·중기청·통계청, 코트라·중진공·무협 등

○ **이관섭 차관**은 **"정부가 물류 및 통관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우리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"**라고 강조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.

1 **국토부**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해 **첨단물류인프라 공급과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**하기 위해 **규제개혁과 경쟁력 강화**를 추진한다.

○ 먼저 **물류시설법을 개정**하여 **도시 내 물류단지 설치를 허용**('도시첨단물류단지')하고, **내년 상반기에 5곳 내외의 시범단지를 확정**해 낙후한 도심물류터미널 등을 **도시물류단지로 리모델링**하기로 했다.*

* '15.5.6,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발표

- **'도시첨단물류단지'**에는 **물류-유통-첨단산업간 융복합을 허용**해, **전자상거래가 한번에(원스톱) 업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.**

○ 또한 **「글로벌 물류기업 육성TF」**를 통해 **해외진출, 전자상거래 등 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**하고, **물류인력양성사업을 고도화**해 정보기술(IT)·유통 등 **융합형 인재를 양성**함으로써, **물류 인력 인프라를 확충**하고 **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**을 도모하기로 했다.

2 코트라는 **'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및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(이하 B2C)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'**을 발표했다.

○ 코트라는 **중남미 정상순방**을 통해 **매년 10% 이상 성장**하고 있는 **중남미 온라인 쇼핑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**되었다고 평가하며, **순방을 통해 마련된 교두보를 우리 기업의 실질적 제품 수출로 연계**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.

- 5월 말에 지난 중남미 순방 때 양해각서(이하 MOU)를 체결한 현지 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국내에 초청해 **중남미 온라인 유통망 입점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.**

- **하반기**에는 **국내 홈쇼핑 TV의 현지 진출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동반진출**을 추진한다.

○ 이와 함께 현재 전 세계 43개 지역(22개국)에서 운영하고 있는 **코트라 공동물류센터에 개별배송·반품 등 B2C 기능을 보강**해 우리기업의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다.

- 이를 위해 연말까지 **뉴욕, 로스앤젤레스(LA), 시카고, 도쿄, 암스테르담, 상파울루, 산티아고 등 7개 지역에 B2C 기능을 도입**하고 **보고타에는 공동물류센터를 신규로 구축**한다.

- 코트라는 일련의 지원정책을 통해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**5년 내 30억 달러 규모의 우리제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** 있다.

3 **관세청**은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의 수출신고 부담을 대폭완화하기 위해 관세청 **전자통관시스템과 오픈마켓간의 연계**를 추진한다.

○ **기존에는** 케이몰24(Kmall24) 등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**개별 판매자**(셀러)**가 각각의 주문 건을 관세청에 별도로 신고**해야했으나, **이번 연계 작업으로 중개사업자인 오픈마켓의 거래정보가 자동으로 수출신고시스템(관세청 UNI-PASS)에 연계해 처리한다.**

- **관세청은 동 시스템을 9월부터 운영한다는 목표**아래 작업을 진행중이며 **업체의 신고부담 감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**된다.

4 이와 함께 **백화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유통기업**인 **롯데**가 **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주요전략과 노하우에 대한 발표**도 진행되었다.

□ 한편, **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핵심개혁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**하고 있는 정책이며,

○ **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는**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**정책에 대한 환류와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'14. 9월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출범**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김용운 사무관(☎ 044-203-40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제4차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 개요

□ **추진배경**

○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**최신 트렌드**를 **공유**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**업계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**를 위한 장을 마련

□ **4차 회의 개요**

○ **(일시/장소) 5.21일(목) 09시 /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**

○ **(참석자)** 정부, 전자상거래 업체 및 수출유관기관 등 25여명

- (전자상거래 업체) G마켓, Qoo10, 카페24, 롯데닷컴, 이지웰피아, 판다코리아 등
- (물류업체) 중원GLS 현대로지스틱스, CJ대한통운
- (정부) 산업부, 국토부, 통계청, 관세청, 중기청, 우본 등
- (공공) 코트라, 중진공, 무협, 온라인쇼핑협회 등

○ **(주요내용)** 전자상거래 수출 **물류·통관** 관련 최신 동향 공유

① 2015년 물류정책 방향 - 전자상거래 수출 중심으로(국토부)

②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및 B2C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(코트라)

③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 도입 계획(관세청)

④ 롯데닷컴의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(롯데닷컴)